

북한 도시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도시민 일상사의 콘텐츠 분석 틀을 중심으로 -

서문기**

국문초록

1990년 이후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 공간과 도시민 삶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국가 중심의 북한 체제는 도시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 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북한 도시연구도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 사회를 정태적으로 기술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동태적 변화의 미시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론도 지리정보체계, 디지털 문화기술지, 인공지능 및 딥러닝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일상사의 콘텐츠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 도시연구의 지형에 접근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확장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으로 자료 부족과 편중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북한의 도시공간에 배태된 도시민의 심리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하여 숨겨진 사회적 동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화의 도입에 따른 북한 사회구성체의 변화와 국가 및 시장의 함수관계에 따른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진단하고, 학제 간 또는 산학연 네트워크에 의한 혁신적인 연구 체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방법론적 동향, 메타분석, 도시연구, 일상사 콘텐츠, 북한

* 이 연구는 2022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융합연구) 및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2021S1A5C2A0208988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김성배, 박성열, 이시효 선생님과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접수일(2024년 3월 26일), 게재 확정일(2024년 4월 9일)

I. 서론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 국가인 남북한의 체제경쟁(system competition)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갈등 구조를 둘러싼 국제지형과 사회 인식의 파동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을 이해하고 발전 전망을 진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동시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관점은 결국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정보화와 세계화 과정으로 그동안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와 정치권의 이념적인 구호 대신 사회구성원의 삶의 토대와 생활세계의 가치체계가 사회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구성원의 정보 접근성과 세계관을 확장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중심을 시민사회로 이동시켜 개방과 개혁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변환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1989년 구소련 및 동구의 해체 과정에서 인터넷에 의해 정보 비대칭의 관계가 해소되면서 사회구성원의 인식론적 전환은 사회주의 이행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¹⁾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구조와 변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는 북한 연구의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북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지형의 냉전체제와 남북한의 대립 구도에서 사회주의 이념체계와 북한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사회발전의 편차를 통해 기존의 정치 및 군사적 차원에 관한 연구 관심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1990

1) Franda, M., *Launching into Cyberspace: Internet Development and Politics in Five World Regions*, Lynne Rienner Publishing, 2001.

년대에는 북한에서 장마당이 형성되고 한류를 포함한 외부 정보가 부분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국가계획과 시장 기제의 결합이라는 혼합경제의 단초가 나타나면서 시장 기능의 핵심 공간인 도시에 관한 연구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화 과정은 경제성장의 보편적인 단계이며, 도시공간의 비중과 기능은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도시화 추세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나 지역적인 요인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²⁾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이행기에 놓여 있는 도시들은 과도기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도시화의 속도, 방식, 성격 면에서 다소 복잡적이면서도 때로는 모순적인 특성들을 배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 공간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시화 비율은 80% 이상으로 추정되어 개발도상국의 평균 속도보다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다.³⁾ 더욱이 지역 및 구성원의 상호교류가 적은 상황에서 통계 수치의 이면에 놓여 있는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는 소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을 포함하여 다른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자생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⁴⁾ 그 결과, 소수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기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유형을 가진다. 이는 북한의 도시발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서구 도시와의 경쟁 구도에서 추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기능과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서구의 도시 유형과 달리 북한의 도시구조는 국가에 의해 상당히 계획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평등성을 추

2) Abrahamson, M., *Urban Sociology: A Global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3) UN, *The 2023 Revision of the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UN, 2023.

4) Em, P., "Urbanization in North Korea: An Outline of its Peculiarities and an Estimation of its Real Rate", *North Korean Review* 14, 2018, pp. 26-45.

구하는 가운데 평양은 역할모델의 도시로서 설계되었다. 도시화 증가율은 사회구성원이 도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아닌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가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북한 도시체계가 편중된 형태로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국가의 허가 없이는 도시민들이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방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등 도시 접근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⁵⁾ 최근에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자본 요소에 의해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도시 내부의 지역 선택권도 여전히 당과 군부 지도층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⁶⁾ 북한의 건물은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초고층으로 건축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구식 형태의 초라한 단층 건물들을 뒤로 감추고 반듯한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국가권력의 의지를 반영한다.⁷⁾

반면에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도시구조의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계급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국가에 의한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공간이 조직화 되고 있으며, 기존의 권력관계에서 경제적 가치의 비중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90년대의 사회경제적 위기로 의식주 등 기본적인 여건에서 사회집단별로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차별화된 분절현상으로 도시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도시민의 일상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⁸⁾ 도시민의 삶 자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의 관계와 활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

5) Tudor, D. and J. Pearson,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Tuttle Publishing, 2015.

6) Lankov, A., Ward, P., Yoo, H., and J. Kim, "Making Money in the State: North Korea's Pseudo-State Enterprises in the Early 2000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7(1), 2017, pp. 51-67.

7) Demick, B.,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Harper and Row, 1981.

8) Haggard, S., and M.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물로서 도시의 공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 도시의 공간적 맥락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성과를 축적해 왔고 또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가? 북한 도시화 과정의 실제 모습에 대한 이해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법론적 쟁점과 함의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시장영역이 확장되고 이에 따른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시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분석 틀은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전망을 제공할 수가 있다. 북한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일상사와 같은 내적인 삶의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변화 및 구조적 특색을 통합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검토하고 향후 도시연구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법론적 토대에 기초한 문제의식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와 차별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북한 도시연구의 흐름과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도시공간의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연구 성과와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북한 도시민의 일상사 콘텐츠에 대한 분석 틀을 비교하고 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II. 방법론적 토대

인류의 역사는 시지프스(Sisphus) 신화 이래 끊임없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시대나 사회도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의 흔적이 역사의 동인이다. 시대가 바뀔에 따라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며 이를 해결하는 방식도 편차를 가지게 마련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지난날과 다르지만, 기존의 해결 방법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시공간에서 누적된 지식체계를 구성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고대의 점성학에서 주술

과 상식, 그리고 현대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해결의 방법은 여전히 함께 진행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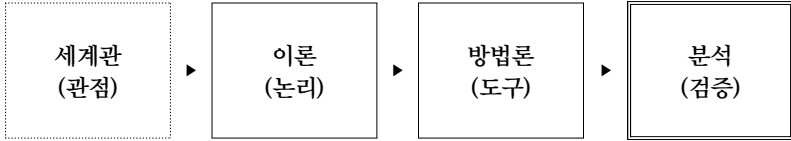
북한 도시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은 연구 대상인 북한 도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다. 그렇다면, 북한 도시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이는 다양한 문제해결의 방식에서 어떠한 관점에 기초하는지를 의미하며, 그 토대는 통상 얇이라고 하는 지식의 총체적 형태로서 과학적 접근을 말한다. 과학은 과학공동체에 의해 수용되는 지식을 의미하며, 크게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진다.⁹⁾ 첫째, 과학은 경험 세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모두 과학인 것은 아니다. 과학의 출발점으로 체계성은 지식 형성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의 공통 분모는 방법론에 있는 것이지 연구 대상이나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지 현상을 관찰, 기록, 분류, 분석, 해석 등 일련의 과학적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곧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연구 대상에 대한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으며, 연구자가 객관적 형식을 통해서 진술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셋째, 과학은 검증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한다. 연구 대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과정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과학적 방법론의 체계는 어떤 세계관 또는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서 출발하여 분야별 이론체계에 기초한 논리적 추론을 제공한다. 각 이론은 연구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기준점을 마련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틀을 구성함으로써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변수에 대한 실험 및 통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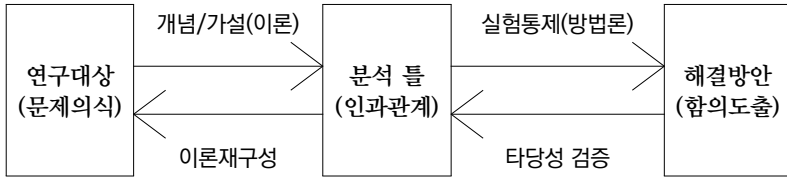
9) Clark, T., and L. Foster, *Social Research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설정한 방법론적 도구에 의해 수집된 연구 대상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이론적 주장을 검증한다.

1) 과학적 방법론의 체계



2) 연구 설계



〈그림 1〉 연구방법론의 구조

출처: 저자 작성

이와 같은 과학적 방법론의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한 가라는 관점에서 연구 주제의 밑그림을 설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현상의 속성에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과 가설의 관계를 정립한 후 연구 문제를 구성한다. 셋째, 관련된 연구 주제를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쟁점을 도출하고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론적 준거에 기초해서 실험 및 통제 과정을 거쳐 변수의 조합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선택적 친화력을 확보한다. 넷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해결 방안과 연구의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학적 토대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도시 연구의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방법론은 어떻게 구분하여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도시민 일상사의 콘텐츠에 대한 분석 틀을 비교하고 향후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도시공간의 변화와 도시민 삶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경제 및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하며, 통계분석으로부터 문헌 및 사례연구와 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한 폭넓은 조망을 요구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시구조와 변동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도시의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역동성과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고자 한다.

북한 도시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특성을 내포한 북한 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이념 지향적인 경향성이 강하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지역에만 초점을 두어 지방 분권 및 지역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발전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심층 분석과 관련하여 방법론적 흐름을 고찰함으로써 도시연구에 관한 학문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일반적인 북한 연구의 방법론을 도시연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 본 연구는 도시연구의 방법론을 북한 도시연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주로 북한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도시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 도시의 드러난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일상사와 같이 드러나지 않은 실제 측면에 대한 천착에서는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도시 현상을 분석하는 공간분석, 생활세계 분석, 문화기술지 방법 등의 특화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방법론적 확장성

을 검토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셋째, 북한 도시의 구조적 특성 및 동학을 규명하기 위해 상부구조 중심의 거대 담론의 한계에서 벗어나 거시와 미시적 차원을 연계함으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편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생활세계로서 도시민 콘텐츠의 개념과 관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에 기초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도시 연구의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 보고, 문헌 연구 및 구술 자료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만 아니라 구글 지형도, 인공위성과 영상 자료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III. 북한 도시 연구의 동향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는 변수 간 인과 구조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과 논리적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가설 검증의 전통은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며, 종종 대조적인 연구 결과로 방법론적 쟁점을 가져온다.¹⁰⁾ 다만 관찰이 가능한 사례의 수가 적어질수록 통계적 처리에 기초한 양적 분석의 효용성이 작아지는 지형에서 비교연구를 검증하는 질적 분석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접근은 상호 보완적이다. 변수 중심의 양적 접근(variable oriented method)은 광범위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패러미터(parameter) 관계를 통해 일반화된 유형을 검증하는 데 반해, 사례 중심의 질적 접근(case oriented method)은 좁은 범주의 역사적인 서술법에 기초하여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흐름을 비(非) 통계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과 구조와 특수성을 규명한다.

10) Ragin, C.,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북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정한 이론이나 방법론의 도입 없이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기술하거나 국제지형의 역학관계를 거시적인 담론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980년대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북한 사회 내부의 이념적 요소를 주로 문헌 연구와 탈북민 면접을 통해 분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일상생활 연구, 행위자 및 네트워크 연구, 도시사(都市史) 연구 등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북한 역사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학제 간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흐름은 크게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와 북한 사회에 대한 사례연구의 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사회주의 현실을 자본주의 함수관계에 기초하여 여타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를 밖으로부터 보려고 한다면, 후자는 주체사상의 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북한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비교연구는 비교적 작은 수의 사례를 갖는 사회현상에 대해 시간 축을 따라 맥락적 배경을 반영하여 공통적인 핵심 변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적인 사례는 인과 모델을 설정하기가 어렵지만, 비교연구에서는 각 사례 수준에서 공통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복수의 사례에 적용되는 설명적 가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과 혁명, 사회운동 등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일 수밖에 없는 사회현상을 비교 연구할 때 유용하지만, 방법론적인 적용 범위가 좁고 사례 간 차이점이 커지는 경우는 인과 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사례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론적인 틀을 설정하여 개별 사례에 접근함으로써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적 추론(analytic induction)을 적용하기가 유리하다. 분석적 추론은 다변량 인과 구조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일련의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압축적인 논증을 향해 질적 자료의 행렬식을 통해 분석한다.¹¹⁾

11) 서문기, 「비교역사방법의 이해: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확장」, 『한국사회과학』

이러한 접근은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심층 분석할 수 있지만, 1차 및 2차 자료의 해석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사례별 속성의 편차가 심할 때는 모델 구성과 해석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반면에 사회학과 역사학의 만남을 통해 사례별 분석모델의 복합성을 포함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한된 일반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구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한 연구방법론은 전체주의 관점의 거시적 접근과 개별주의 관점의 미시적 접근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다. 전자에서는 사회구조의 정태적 측면(social statics)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이념적 토대와 변천사, 권력구조, 핵 문제 등을 다룬다. 후자는 사회변동의 기제를 둘러싼 동태적 측면(social dynamics)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의 원리와 실상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학제 간 연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전통의 대칭 관계는 이론적 관점의 차이와 방법론적 특성을 간과한 채 흔히 인식론적 혼란과 방법론적 오류를 둘러싼 지적 논란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이념적 틀 대신에 북한 현실을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며, 북한의 특수성과 정치성에 따른 편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연구의 관점이 바로 방법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후 북한 연구 방향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사회주의 해체 과정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 연구가 시작된 19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와 같이 사회발전의 정당성이 이념체계에서 경제적 가치로 전이됨에 따라 개방된 지형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정치외교학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문학, 사학, 철학, 공학 등 광범위한 학문 영역의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북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관점에서 미시적인 일상사 및 생애사를 탐구하는 방법론적 전통이 강화되고 있

으며, 사회구조의 연결망에 기초하여 구성원의 함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변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인식론적 충격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은폐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역사 동인으로서 구성원들의 역할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정신과 연구 관점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표 1〉은 북한 도시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학문 분야별 체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1990년에서 2024년 1월까지 등재 학술지 논문 기준으로 총 781건이 발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연구 성과가 급증한 2010년대를 북한 도시연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분야별로는 사회과학이 42.6%의 비중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 15.2%로 다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학의 비중(9.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기타 영역에서도 다수의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다.

〈표 1〉 북한 도시 국내 연구 건수

시기	인문	사회	예술 체육	복합 학	자연	공학	의학	기타	계
1990-1999	0	12	0	1	0	13	0	0	26
2000-2009	12	37	2	1	0	13	1	4	70
2010-2019	68	197	6	3	3	46	1	152	476
2020-2023	39	87	5	2	2	10	0	64	209
계	119	333	13	7	5	82	2	220	781
	15.2%	42.6%	1.6%	0.8%	0.6%	9.7%	0.2%	28.1%	100.0%

출처: DBpia 학술정보시스템 기준 (2024.1.)

이와 같은 북한 도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시기별로는 크게 태동기(1990-1999), 상징기(2000-2009), 전환기(2010-2019), 도약기(2020-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태동기로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냉전 종식의

역사적 국면에서 연구 주제가 거시적 담론 및 외형적인 특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시기이다. 북한 체제의 실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토대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별 네트워크와 사회구성원의 삶에 기초한 일상사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사회과학과 도시계획학을 포함한 공학 분야에서 균등한 비중의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연구 대상은 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화 과정,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며 연구 방법은 대부분 문헌 연구 및 노동신문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 자료 등에 의존하고 있다.¹²⁾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장기로서 북한에서 시장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근거지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도시구조의 변화 과정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 결과로 시장과 사회관계망을 비롯하여 의식주 및 보건의료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지역 출신의 탈북민들이 증가하면서 북한 도시의 실제 삶의 모습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가 많이 활용되고, 신의주와 청진과 같은 지방 도시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¹³⁾

세 번째 단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환기로서 북한 도시연구가 이전 단계에 비해 양적으로 6.8배 이상 급증한 시기로 특히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에 주목할 수가 있다. 연구 주제는 시장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공간구조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비롯하여 삶의 질, 식량, 여성, 인권 문제 등 광범위한 범주에 걸쳐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연구방법론에서는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12) 박성열·이은정·이정요·한지만,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행연구 분석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제1호),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2021, 129-162쪽.

13) Lee, S., "The Making of Totalitarian City in Pyongyang: The Spatial Transition from Free to Ideology, and for Marketization", Ph.D. Dissertation, Weimar: Bauhaus Universität, 2020.

14) 정은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158호, 고려대 아세아

Service: SNS),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DM)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방법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네 번째 단계는 전환기에서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발판으로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전반적인 연구 성과는 전환기 단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법론 차원에서는 문헌 연구와 면접 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현상학 및 생애사적 분석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GIS)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기반한 공간분석의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표 2〉 북한 도시 해외 연구 건수

시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고용	역사	기타	계
1990-1999	98	191	40	59	72	44	80	98	682
2000-2009	795	580	277	275	286	116	406	2,870	5,605
2010-2019	710	1,271	384	288	1,693	266	512	8,426	13,550
2020-2023	817	1,909	3,852	1,014	4,122	631	549	2,237	15,131
계	2,420	3,951	4,553	1,636	6,173	1,057	1,547	12,631	34,968
	6.9%	11.3%	13.0%	4.6%	17.6%	3.0%	4.4%	38.9%	100.0%

출처: ProQuest(Central) 학술정보시스템 기준 (2024.1.)

〈표 2〉는 북한 도시에 관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주제 영역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기별 특성은 국내 연구의 동향과 유사하다. 1990년에서 2024년 1월까지 학술지 게재 논문 기준으로 총 15,131건이 발표되었으며, 연구 성과가 급증한 2010년대를 북한 도시연구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주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 및 사회영역이 각각 17.6%와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영역이 11.3%로 다음 순위를 이

어가고 있다. 1990년대의 태동기에서는 경제와 정치 영역이 핵심 분야인데 비해, 2020년 이후 도약기에서는 발전 및 사회영역이 새로운 중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기타 영역에서도 다수의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환경, 보건, 인구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지만 후자의 단계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범주에서 북한의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다.

IV. 도시민 일상사의 콘텐츠 분석

북한 사회에 대한 방법론적 적용은 1990년에 들어서면서 급증한 탈북민들에 대한 의식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사진과 GIS 및 AI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북한 연구 자료의 한계성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지배계급 및 상부구조에 기초한 전체주의 접근과 달리 미시적인 생활세계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사회의식에 기초한 사회변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도시 연구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2010년 이후 2023년까지 도시민 일상사 콘텐츠와 관련된 주요 논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역학에서 도시계획학 및 건축공학에 이르기까지 학문 영역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주제는 평양 및 개성 중심에서 북한 27개 도시로 범위를 확장하여 도시의 내부구조 및 공간 격차, 국가권력과 시장 기제, 삶의 변화와 축소 도시 등을 포함한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연구방법론 면에서는 전통적인 문헌 연구 및 사례연구로부터 생애사에 관한 구술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연결망(SNS), 위성 영상,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의 질적 분석의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연구 자체는 거시와 미시 차원의 중간 범주(meso level)에서 실제적인 일상사의 콘텐츠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시장 기

제에 의한 도시민의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 도시민의 생활세계에 관한 주요 저서를 살펴보면, 북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주제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단의 관점에서 남북한 비교연구와 북한의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북한 도시의 지리정보와 도시공간 및 산업 전망에 관한 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표 3〉 북한 도시민 일상사 콘텐츠에 관한 주요 논문

시기	저자	주제	연구 방법	학문 분야	비고
2023	이시효	북한 도시공간 격차	AI 기반	지역개발학	개성
2023	백명숙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 매칭	북한학	평양
2023	이시효 외	시장과 정부의 북한 도시화 영향	시계열	사회학	이산화탄소배출량
2023	박병애	북한 국경도시 여성 삶의 변화	질적 분석	북한학	혜산지역 탈북여성
2021	박성열 외	북한 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헌 연구	북한학	선행연구
2021	장호준	동북아 경제교류와 정치	사례 연구	정치경제학	단둥
2021	이종겸 외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권력	담론 분석	도시계획학	1953-1970
2021	김종연 외	청진의 도시계획	계획방법론	건축학	폴란드, 평양, 함흥
2020	김정아 외	북한의 개발 현황과 변화	이미지 데이터	공학	인공위성 데이터
2019	강인호 외	통일 이후 북한의 축소 도시	사례 연구	행정학	청진, 신의주, 평성
2019	황진태	북한 도시연구 방법론	SNS	지역개발학	평양, 인스타그램
2018	원석환 외	남북한 공간적 도시 유사도	군집분석	지역개발학	위성영상
2017	최은희	대도시 주택건설 경향과 과제	문헌 연구	법학	평양
2016	기정훈	북한 도시의 환경오염	공간 영상	행정학	구글 어스 기반
2016	라이너 도멜스	북한 도시의 내부구조	통계 분석	북한학	북한 27개 도시
2015	김준현	북한 도시의 공간분석	도시화 지수	환경공학	Landsat 영상
2013	안재섭	북한 도시연구 방법	문헌 연구	도시지리학	구술 자료
2013	최봉대	북한 도시연구의 미시적 방법	문헌 연구	정치외교학	도시 가구 분화
2012	박희진	북한 도시사 연구	시각 영상	지역학	함흥
2012	조정아	북한 도시연구 방법	구술 자료	지역학	생애사, 지역정체성

출처: 저자 작성

〈표 4〉 북한 도시민 일상사 콘텐츠에 관한 주요 저서

시기	저자	주제	연구 방법	학문 분야	비고
2022	김성배 외	시장이 견인하는 북한 도시변화	혼합 분석	행정학	송실대
2021	박원호	평양의 변신	위성 자료	건축학	도시 인프라
2020	홍민 외	북한 실태연구	영상 자료	북한학	네트워크와 물류체계
2019	박원호	북한 도시의 미래	위성 자료	건축학	평양, 해산
2018	김정환	북한 도시 개관	인포그래픽	국제학	북한 13개 도시
2017	장세훈	남북한 도시화 비교와 전망	문헌 연구	사회학	냉전과 분단 맥락
2014	고유환 외	공간과 일상, 정치의 도시사	면접 조사	북한학	동국대
2014	고유환 외	북한 도시의 자료 해제	면접 조사	북한학	동국대
2014	임동우 외	북한 도시의 공간, 지리정보, 산업	이미지 데이터	지리학	북한 70여 건축물
2013	고유환 외	북한 도시사 연구	혼합 분석	지리학	동국대
2009	이승일 외	북한의 도시 지역 개발	문헌 연구	도시계획학	도시 인프라
2008	이우영 외	북한 도시 주민의 사적 영역	면접 조사	북한학	사적 담론
2007	최완규 외	북한 도시정치와 체제 변화	면접 조사	북한학	경남대
2006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면접 조사	북한학	경남대
2004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면접 조사	북한학	경남대

출처: 저자 작성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도시의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계층 분화 및 사적 담론 형성과 네트워크 체계까지 북한 도시의 실제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및 사례연구, 시각 및 영상 자료, 면접 조사 및 구술 자료, 사회연결망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북한 도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주요 학술기관으로는 크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동국대 북한도시사연구팀, 송실대 북한도시연구단이 있다. 먼저 극동문제연구소는 초기 단계인 2003년부터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위기와 변화, 체제 변화에 이르기까지 북한 변화의 구체적 원인과 정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¹⁵⁾ 연구 방법은 대부분 탈북민 면접 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경도시의 현지 조사

를 병행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한 도시 공간의 질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동국대 북한연구팀에서는 북한의 도시사에 관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구 사회주의의 도시연구 방법을 북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함흥과 평성의 도시 공간구조와 주민 삶을 연계하여 일상사를 탐구함으로써 질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⁶⁾

송실대 북한 도시연구단은 2021년부터 정부와 시장의 지형에서 변화된 도시 공간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⁷⁾ 이론적으로는 사회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등을 포함하여 학제 간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법론으로는 GIS에서 AI 분석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의 일상사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 지형을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미시적인 생활세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연구방법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

GIS 및 구글어스와 같은 위성 자료를 토대로 하는 양적 및 질적 분석은 북한의 도시구조와 변화를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연구 대상 도시들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상세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 특히 도시변화에 관한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시계열 공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하다. 도시 공간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축적되면 도시변화에 관한 양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민 삶의 공간적 측면은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지도 위에 다양한 실증 자료를 투영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인지지도(cognitive map) 및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통

15) 최완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한울, 2007.

16) 북한도시사연구팀,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 2013.

17) 김성배 외, 『시장이 견인하는 북한 도시변화』,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 2022.

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GIS는 연구방법론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통계자료가 부족한 지역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시간 및 비용 대비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구 기능의 확대로 이어져 다양한 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딥러닝 변수 추출 방식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AI 자료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변화의 양적 차원은 위성 자료에 의해 확보된 도시지형도를 기반으로 계량화된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확산의 정도, 도심의 밀도, 토지이용의 변화, 시가지의 성장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변화의 질적 차원은 공간분석을 통해 산출한 통계치에 질적 차원을 반영하여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시발전의 지속 가능성, 삶의 질과 만족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도시민 삶의 질적인 차원을 양적 차원과의 관계로 함수화함으로써 양적변화에 연동된 질적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다.¹⁸⁾ 공간분석의 연구 방법은 탈북민과 북한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SNS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지역에 대한 정확성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실증 자료가 부족한 북한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과 지리정보체계에 기반한 접근은 북한의 도시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북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이론화가 진행된다면, 공간 및 질적 분석의 혼합연구는 도시 내부구조의 공간 변화와 환경적 특성에 관한 세부적인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8) 이시효·김성배·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현대북한연구』 제26권(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23, 45-83쪽.

2. 일상사의 콘텐츠: 도시민의 삶 분석

도시민의 현재 삶을 보다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도시 사회학의 핵심 영역으로서 1920년대 이후 미국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에서 도시연구를 위해 사용한 접근법이다.¹⁹⁾ 이 방법은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왜 하는가의 질문을 통해서 일상적인 규칙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아울러 시간 축을 따라 일상적인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연속성을 갖는지를 밝히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장 조사와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역사적 자료들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콘텐츠를 분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세계의 코드를 추려내기 위해서는 현상의 분석과 기술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사회구조에 초점을 두고 일상적인 콘텐츠의 흐름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힘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면 방법론적 확장이 가능하다.

생활세계 자체는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의 사회환경과 구성원의 복합적인 행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일상사의 율타리 안에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활동은 구성원의 체험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사회변동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사 콘텐츠의 연구는 단순히 생활세계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토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사회변화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사회환경과 세계관의 변화는 선형적인 의식을 유보하는 판단중지(époché)와 ‘사태 그대로(die Sache)’의 현상학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접근은 일상사

19) Abbott, A., "Of Time and Space: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Chicago School", *Social Forces* 75(4), 1997, pp. 1149-1182.

20) Braudel, F.,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The Limit of the Possible*, Spiegel and Grau, 2009.

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 생애사 및 사회사 연구, 구술 자료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활용됨으로써 거시적 이론에서 놓치는 실제 삶의 격차에 대한 분석 공간을 보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북한의 도시에 적용한다면, 상부와 하부구조의 연계성을 진단하고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 및 동학을 규명하고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분석 틀을 제시할 수 있다.²¹⁾ 북한 도시민의 일상사 콘텐츠를 분석하는 작업은 북한의 사회적 토대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북한 도시의 연구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시장 도입으로 북한의 생활환경과 구성원의 의식구조는 점차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체험과 구성원의 의식구조에 대한 분석은 향후 북한 도시민의 사고방식과 실천적 변화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문화기술지: 사회문화적 특성 분석

앞서 살펴본 공간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형도와 통계적 수치를 포함하는 기초자료들은 도시민의 삶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일상사 콘텐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발전한 사회과학의 중요한 방법으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삶을 문화적 렌즈를 통해 연구하는 접근법이다. 주로 인터뷰, 참여관찰, 내용 분석의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가치체계, 의식과 행위, 관행과 풍습 등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축적이 가능하다.²²⁾ 반면에 방대한 자료를

21)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권(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5, 120-148쪽.

22) 서문기, 「사회발전과 문화: 기어츠(Geertz)의 비교문화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수집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고 자료수집 및 활용 자체가 연구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화기술적 방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확보에 대한 창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 도시연구를 위해 탈북민의 인터뷰나 문헌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참여관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탈북민에 더하여 북한 거주자의 경험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의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콘텐츠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료수집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활용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문화기술지에 접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문화기술지 방법은 직접 대면 및 참여 방식의 전통적인 접근과 달리 컴퓨터 매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규명한다. 이 방식은 자료의 수집 규모와 범위가 매우 크고 다양하며, 참여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대화방식은 자료의 질적 제고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여 다양한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와 참여자의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의 정체성 논란과 함께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 기반의 지리정보와 인터뷰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디지털 문화기술지(digital ethnography)는 도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삶에 관한 만족도, 가치체계, 내적 기제 등을 분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²³⁾ 이러한 방법은 도시민 일상사에 대한 기록, 사진, 영상,

『사회과학논총』 제15권,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 2013, 119-140쪽.

23) Stephen, A., and S. Matthews, "Geo-ethnography: Coupling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with Ethnographic Methods in Urban Re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Geographic Information and Geovisualization* 40(4), 2005, pp. 75-90.

문서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문화적 코드를 추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부로 향한 연구자의 관점에서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내적 기제나 지배적 가치체계를 규명할 수가 있다. 반면에 실증적 성격의 GIS와 관념적 성격의 문화기술지 방법의 통합은 자칫 본래의 방법론적 특성을 상쇄하는 위험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이론적 근거 없이 복합적인 문화적 차원의 내용을 방법상의 효율성에 의해 지형도에 기계적으로 배치한다면 질적인 측면과 맥락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분석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다.

V. 결론 및 함의

1990년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 공간과 도시민 삶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국가 중심의 북한 체제는 도시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 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북한 도시연구도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 사회를 정태적으로 기술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동태적 변화의 미시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론도 문헌자료의 재해석, 지리·문화기술지 접목, 시각 및 영상 자료 분석, SNS에 기초한 네트워크 분석, AI와 딥러닝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일상사의 콘텐츠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 도시연구의 지형에 접근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확장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으로 자료 부족과 편중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그동안 북한 도시연구는 방법론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 도시연구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연구기관 별로 분산된 지식체계에서 개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권의 성

격이나 이념적 갈등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도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도시연구에 대한 시기, 주제, 영역별로 장단기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추진 체계와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적인 연구 자료의 창고(Data Base)를 구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야별 연구 계획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 둘째, 국내외 연구 동향에 비추어 폭넓은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 및 공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쟁점에 관한 생산적인 토론 및 담론의 형성을 위한 전반적인 학술적 교류와 협력 작업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망 구조에 의한 연구의 연계성과 상호작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도시에 관한 자료는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기초한 실증주의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북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성과 객관적 자료의 왜곡 및 주관적 자료의 부족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질적 분석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시적 연구의 핵심 자료인 탈북민의 출신 지역에 따른 편중성을 보완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 주제 및 방법론 차원에서 핵심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서로 다른 접근법의 접점에서 통합된 자료수집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적 분석의 특성인 맥락적 파악과 연역적 추론은 양적 분석의 특성인 확장된 표본에 대해 실험 및 통제의 방식으로 적용하여 복합성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합집합과 교집합의 논리에서처럼 분석 틀을 교차검증할 수 있다. 넷째,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공위성 기반의 영상 자료는 문헌자료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공간을 구성하는 배열 유형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행위자가 인식하는 도시 정체성의 수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반면에 모든 영

상 자료가 다 유의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체, 유형, 주제별로 자료의 신중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상 자료는 도시연구의 기초가 되는 문헌 및 구술 자료의 관계 속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때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북한 도시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이 지배하는 학문적 독점 단계는 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념적 굴레를 넘어 학술 및 실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북한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실제 삶의 모습이 투영된 도시민의 일상사를 본격적으로 천착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지형은 확장될 수가 있다.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네트워크, SNS, GIS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연구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질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시공간에 배태된 도시민의 심리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하여 숨겨진 사회적 동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화의 도입에 따른 북한 사회구성체의 변화와 국가 및 시장의 함수관계에 따른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진단하고, 학제 간 또는 산학연 네트워크에 의한 혁신적인 연구 체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배 외, 『시장이 견인하는 북한 도시변화』,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 2022.
- 박성열·이은정·이정요·한지만,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행연구 분석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제1호),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2021.
- 북한도시사연구팀,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 2013.
- 서문기, 「비교역사방법의 이해: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확장」, 『한국사회과학』 제21권(제2·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999.
- _____, 「사회발전과 문화: 기어츠(Geertz)의 비교문화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사회과학논총』 제15권, 송실대 사회과학연구소, 2013.
- 이시효·김성배·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현대북한연구』 제26권(제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23.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권(제3호), 한국사회학회, 2005.
- 정은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158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2014.
- 최완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한울, 2007.
- Abbott, A., "Of Time and Space: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Chicago School", *Social Forces* 75(4), 1997.
- Abrahamson, M., *Urban Sociology: A Global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Braudel, F.,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The Limit of the Possible*, Spiegel and Grau, 2009.

- Clark, T., and L. Foster, *Social Research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Demick, B.,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in North Korea*, Harper and Row, 1981.
- Em, P., “Urbanization in North Korea: An Outline of its Peculiarities and an Estimation of its Real Rate”, *North Korean Review* 14, 2018.
- Franda, M., *Launching into Cyberspace: Internet Development and Politics in Five World Regions*, Lynne Rienner Publishing, 2001.
- Haggard, S., and M.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Lankov, A., Ward, P., Yoo, H., and J. Kim, “Making Money in the State: North Korea’s Pseudo-State Enterprises in the Early 2000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7(1), 2017.
- Lee, S., “The Making of Totalitarian City in Pyongyang: The Spatial Transition from Free to Ideology, and for Marketization”, Ph.D. Dissertation, Weimar: Bauhaus Universität, 2020.
- Ragin, C.,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Stephen, A., and S. Matthews, “Geo-ethnography: Coupling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with Ethnographic Methods in Urban Re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Geographic Information and Geovisualization* 40(4), 2005.
- Tudor, D. and J. Pearson,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Tuttle Publishing, 2015.
- UN, The 2023 Revision of the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UN, 2023.

〈ABSTRACT〉

**A Methodological Review of Urban Research
in North Korea
– Toward a Framework for the Contents
of Everyday Life –**

Suh, Moon-Gi

As markets have formed and some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lives of urban residents as well as urban space since 1990s, North Korea, governed by the state-centered regime, has signaled in the sprouts of urban capitalism, a new social transformation. Given this conditions, a research trend on North Korean cities is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e static approach at the macro level toward the dynamic perspective at the micro level. Following this change, the methodological tradition also attempt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everyday life through the applic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digital ethnograph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This suggest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broadens the scope of research in the field by formatting the topography of North Korean urban studies from a new perspective, and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data and partiality by utilizing various research methods. An in-depth analysis of North Korea's hidden social forces identifies the psychological residue of the residents embedded in urban space, which can be useful for predicting a future track. For the era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social formation and its potential via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market need to diagnose. Furthermore, continuous research efforts meet to promote a cumulative manner by an innovative research system based on interdisciplinary or industry-academia-research networks.

Key Words : Methodological Trend, Meta Analysis, Urban Research,
Everyday Life Contents, North Korea